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1135>

JCCT 2023-11-136

##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그릿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 of Grit and Self-elasticity on Carr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윤미진\* 진혜경\*\*

Yun Mi Jin\* Jin Hye Kyu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그릿이 진로정체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193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의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3.42 \pm 0.45$ , 그릿은  $3.63 \pm 0.60$ , 진로정체감은  $4.06 \pm 0.79$ 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성별에서, 진로정체감은 성별,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은 ( $r=.370, p=.000$ ), 진로정체감과 그릿은 ( $r=.283, p=.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아탄력성, 성별, 그릿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2.6%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진로정체감, 그릿, 간호대학생, 자아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it and Self-elasticity on Carr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among 193 nursing students in G city, from Sep 4 to 15 2023.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a using t-test,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WIN program.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verage score for Self-elasticity was  $3.42 \pm 0.45$ , Grit was  $3.63 \pm 0.60$ , Carrer Identity was  $4.06 \pm 0.79$ . students acquired Self-elasticity by gender as pe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Carrer Identit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arrer Identity of Self-elasticity( $r=.370, p=.000$ ), and Grit( $r=.283, p=.000$ ). Carrer Identity showed Models including the variables, Self-elasticity, Gender, Grit explained 22.6% of the variance in the Carrer Identity stress. Based on the outcome of this study, steps should be taken to design intervention program that emphasize a improve Carrer Identity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arrer Identity, Grit, Nursing students, Self-elasticity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23년 10월 10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Received: October 10, 2023 / Revised: October 22, 2023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angelymj@hanmail.net

Dept. of Nursing, Kaya University, Korea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개인적·사회적 정체감과 가치관, 인생관 등을 확립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성과 직업관을 쌓기 위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한다[1].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건강한 자기 확신 정도를 의미하며[2], 진로정체감의 올바른 형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확신, 자존감 등의 기반이 되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세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3].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사로서 올바른 정체성 형성 시 취업 후에도 간호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직업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으므로[4] 올바른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또, 간호대학생의 안정적인 진로정체감 확립은 간호사로 진로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5]. 즉,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자아탄력성[6], grit[7] 등이 있다.

그릿은 본인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 오랜 기간 동안 지구력을 갖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태도로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8]. 그릿은 대학생들이 취업 및 진로 선택 시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진로정체감을 회복하여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높은 그릿을 가진 학생은 대학 재학기간 동안 개인의 장기적 진로목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9].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처했을 때,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다[10].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을 선택한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함으로써 대학생활 동안 진로에 대한 명확한 준비 없이 병원으로 취업을 한 경우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과 몰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11], 결국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준비행동 부족이 낮은 업무만족도와 높은 조기 이직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12]는 입학부터 진로가 결정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진술된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병원 현장에서 효과적인 적응, 나아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정체감 확립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그릿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규명하여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 진로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그릿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그릿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그릿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생인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총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가보고식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 196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충분한 응답의 3명을 제외한 193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1)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를 권지은(2002)[13]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14개 문항이고,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3]의 결과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79$ 이었다.

2) 그릿

본 연구에서는 Duckworth 등(2009)이 개발한 Short Grit Scale의 하위척도인 흥미 유지 영역 3문항, 노력 지속 영역 3문항을 Song과 Lim(2020)[14]이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4]의 결과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73,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3) 진로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Holland 등(1980)이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의 하위척도 중 정체감 척도 18문항을 Kim(1997)이 한국 간호대학생들에게 맞게 번역하고, Kwon과 Kim(2002)[15]이 14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5]의 결과에서 진로정체감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서 연구목적과 내용 그리고 취지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거부, 중단

할 수 있음과 참여자의 자료는 부호화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 모두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은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네째,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16.1%, '여학생'은 83.9%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3학년'이 28%, '4학년'이 72%를 차지하였으며, 종교에서 '기독교'인 학생이 37.3%를 '카톨릭'인 학생이 12.4%, '불교'인 학생이 10.9%를 '종교가 없는' 학생이 39.4%를 차지하였다. 학과만족도에서는 '만족'이 39.4%, '보통'이 44.6%, '불만족'이 16.1%를 나타내었으며,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이 23.3%, '보통'이 65.8%, '불만족'이 10.9%로 나타나 아래 Table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93)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31	(16.1)
	Female	162	(83.9)
Grade	3rd	54	(28.0)
	4th	139	(72.0)
Religion	Christian	72	(37.3)
	Catholic	24	(12.4)
	Buddhism	21	(10.9)
	none	76	(39.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76	(39.4)
	Moderate	86	(44.6)
	DisSatisfied	31	(16.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	Satisfied	45	(23.3)
	Moderate	127	(65.8)
	DisSatisfied	21	(10.9)

2.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정도의 총 평균은 3.42±0.45로 나타났으며, 그릿 총 평균은 3.63±0.60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은 4.06±0.79를 로 나타나 아래 Table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 정도  
Table 2.. Mean score of Self-elasticity, Grit, Carrer Identity (N=193)

Variables	Average M±SD	Number of item
Self-elasticity	3.42±0.45	14
Grit	3.63±0.60	6
Carrer Identity	4.06±0.79	14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성별( $t=-2.844, p=.006$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 $3.59±0.44$ )이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성별( $t=-2.971, p=.003$ ), 학년( $t=-2.232, p=.029$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 $4.31±0.44$ ), 4학년( $3.76±0.47$ )이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아래 Table 3과 같다.

3.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의 상관성은 진로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은( $r=.370,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릿과 진로정체감은( $r=.283,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아래 Table 4와 같다.

4. 연구대상자의 진로정체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종교, 학과만족도, 실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각각 0.801~0.973, 0.898~0.946으로 0.1이상으로 나왔으며, 분산팽창인자를 구한 결과 1.026~1.246, 1.074~1.154의 2 이하로 낮게 나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대상자들의 자아탄력성( $\beta=.484$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다음으로 성( $\beta=.343$ ), 그릿( $\beta=.339$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에 자아탄력성, 성별, 그릿이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F=14.643, p=.000$ ),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2.6%로 나타나 아래 Table 5와 같다.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을 조사하고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아탄력성, 그릿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정체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점수는 4점 만점에 3.42점을 나타내었고 선행연구 결과[11]의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점수는 2.75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며, 선행연구[16]의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3.38점, 선행연구[6]의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점수 3.48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릿 점수는 5점 만점에 3.63점으로 나타내었고, 선행연구[7]의 간호대학생들의 그릿 점수는 5점 만점에 3.53점, 간호학과 1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그릿을 연구한 선행연구[17]의 그릿 점수는 3.1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주로 4학년에 편중되어 있는 본 연구가 나타난 결과라 사료되며 높은 그릿수준을 가진 대학생이 대학 기간동안 진로와 관련된 장기적 목표를 위해 지속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in Self-elasticity, Grit, Carrer Ident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Self-elasticity			Grit			Carrer Identity		
		M±SD	t/F	p(Duncan)	M±SD	t/F	p(Duncan)	M±SD	t/F	p(Duncan)
Gender	Male	3.59±0.44	2.844	.006	3.76±0.83	.853	.399	4.31±0.44	2.971	.003
	Female	3.39±0.38			3.60±0.87			4.01±0.38		
Grade	3rd	3.61±0.26	1.119	.265	4.03±0.29	.947	.345	3.89±0.26	-2.232	.029
	4th	3.35±0.47			3.47±0.13			4.12±0.47		
Religion	Christian	3.52±0.45	10.629	.061	3.62±0.44	1.997	.116	4.12±0.45	2.441	.055
	Catholic	3.23±0.42			3.33±0.38			4.24±0.42		
	Buddhism	3.24±0.45			3.89±0.29			4.04±0.45		
	none	3.48±0.42			3.65±0.44			3.95±0.4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45±0.29	1.076	.343	3.67±0.19	1.611	.202	4.03±0.29	.174	.840
	Moderate	3.42±0.28			3.67±0.90			4.07±0.28		
	DisSatisfied	3.36±0.42			3.40±0.79			4.10±0.42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	Satisfied	3.46±0.14	.925	.398	3.61±0.11	.344	.710	4.02±0.14	.184	.832
	Moderate	3.43±0.27			3.65±0.44			4.07±0.27		
	DisSatisfied	3.30±0.47			3.50±0.38			4.08±0.47		

표 4.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그릿, 진로정체감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onsciousness of Self-elasticity, Grit, Carrer Identity

Variables	Self-elasticity	Grit	Carrer Identity
	<i>r</i> ( <i>p</i> )		
Self-elasticity	1	.277(.000)	.3705(.000)
Grit	.277(.000)	1	.283(.000)
Carrer Identity	.370(.000)	.283(.000)	1

표 5 연구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예측요인  
 Table 5. Influencing factors Carrer Identity

Variables	$\beta$	<i>t</i>	<i>p</i>	<i>F</i>
Self-elasticity	.465	7.546	.000	56.945
Gender	.343	5.637	.000	48.951
Grit	.339	5.869	.000	49.861
Adj.R <sup>2</sup> = 22.6 F=14.643, <i>p</i> =.000				

해서 노력하므로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업, 임상 실습, 국가고시 준비 등을 매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점수는 4.0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7]에서 4점 만점에 2.74점, 선행연구[6]에서는 2.6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3.44점, 3.2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또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가 4학년에 집중되어 있고 자료수집기간이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입사지원을 하는 시기라 진로정체감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된다.

자아탄력성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은 남학생, 4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자아탄력성과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왔다는 연구[6]와 반대되는 결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진로정체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밝힌 연구[6]와 일치하며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각 학년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로정체감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에서 자아탄력성, 그릿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가 탄력적인 간호대학생이 자아가 경직된 간호대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자아탄력성과 진로정체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18]와 일치하며, 그릿과 진로정체감의 양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본인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며 끈기 있게 노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된 변수들과 영향을 준 일반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자아탄력성, 성별, 그릿이 영향을 주었고,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22.6%였다. 이 결과는 자아탄력성과 그릿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6] [19]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보다 현재 노동시장의 흐름과 세태에 비추어 직장을 선택하여 오히려 경력자로서 근속기간도 짧아지고, 힘들고, 어렵고, 끈기가 없어지게 되므로 결국은 자주 이직을 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직업의 외적 요소보다 직업인의 진로정체감 확립과정에 자아탄력성, 그릿이라는 내적 요소들을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다시 말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대해 확신을 주고 간호사로서 임상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적 역량인 자아탄력성,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그릿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그릿, 성별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인 내적 요소의 강화시켜주기 위한 자아탄력성과 그릿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화된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학교를 표의표집 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과 표집방법으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S. Yu. and Kim, E.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CESA core competencies and career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2, pp.1-26, 2016.
- [2] J. J. Holland, D. C. Gottfredson. and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No. 6, pp. 11-19, 1980.
- [3] I. S. Jang. and M. S. Ko. "The Effects of Christian Nursing Students' Spiritual Maturity, Sense of Calling, and Career Identit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26, No. 2, pp. 27-38, 2022. <https://doi.org/10.38083/JKNS.26.2.202208.055>.
- [4] H. R. Nam. and M. K. Kim. "Influence of Career Identity,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 Society Nursing Research*, Vol. 5, No. 3, pp. 25-35, 2021. <https://doi.org/10.34089/jknr.2021.5.3.25>
- [5] S. M. Koo, Y. M. Jang and M. H. Kang.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thical Awareness, and Nurse Image on Career Identity in a Pandemic Situ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8, No. 4, pp. 371-38, 2022. <https://doi.org/10.1111/jkana.2022.28.4.371>
- [6] S. Y. Jun.. and Y. J. Lee.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lastici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on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9, pp. 767-683, 2020.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9.767>
- [7] J. H. Park, "The Influence of Fear of

-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10.
- [8] J. M. Stoffel, J. Cain. “Review of Grit and Resilience Literature withi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Vol. 82, No. 2, pp. 124–134, 2018.
- [9] H. J. Le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and Knowledge Achievement of Nurses in Bachelor’s Degre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12, pp. 297–309, 2018.
- [10]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1067–1079, 1996.
- [11] K. A. Lee. and J. H.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2, No. 1, pp. 42–49, 2015.
- [12] Y. J. Koo. and M.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62–71, 2011.
- [13] J. E. Kwon. “The relation of ego-resilience,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problem-solving,”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2.
- [14] H. S. Song. and S. H. Lim.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of the Grit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3, pp. 322–331, 2020.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322>
- [15] Y. H. Kwon. and C. N. Kim.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3, No. 2, pp. 216–229, 2002. <http://dx.doi.org/10.22143/HSS21.7.5.23>
- [16] D. J. Kim.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3.
- [17] M. R. Jung and E. Jeo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6, pp. 414–423, 2018.
- [18] W. Y. Yoo. “The Relationship among Ego-Resilience, Career Identity and Career Maturity in Agricultural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Vol. 3, No. 2, pp. 63–81, 2018.
- [19] M. O. Seo.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Grit and Career Ident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 pp. 729–750, 2020.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9.767>